

http://dx.doi.org/10.17703/JCCT.2022.8.2.203

JCCT 2022-3-26

테러와의 전쟁 시기 영국군의 여성인력 활용정책 연구

A Study of the British Armed Forces Policy Utilizing Female Personnel during the War on Terror

조상근*, 김인찬**, 홍명숙***, 유선영****, 전소민*****, 박상혁*****

Sang Keun Cho*, In Chan Kim, Myung Sook Hong***, Sun Young Yu****, So Min Chun*****, Sang Hyuk Park*******

요약 영국은 테러와의 전쟁 시기 출산율 저하로 병역 가능자원이 감소하고 모병율이 저하되었으나, IS와 러시아로부터 발생하는 복합적인 안보위협이 점차 가중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영국군은 이와 같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 기존의 사회적 보수성을 타파하고 여성인력을 근접전투 직위에 보직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영국군은 여군 활용 사례 발굴, 중단연구, 전투실험 등을 통해 군내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이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략적 소통을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근접전투를 수행하는 전투원이라면 누구나 통과해야 할 전투체력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신뢰성을 증진시켰다. 우리나라도 미중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 가능자원의 감소로 안보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영국군 사례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과 향후 여성인력 정책 수립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여성인력, 근접전투 직위 보직, 전략적 소통, 전투체력평가

Abstract The U.K. during the war on terrorism, the number of military serviceable resources decreased and the volunteer recruitment rate decreased due to the decline in the birth rate, but faced a situation in which complex security threats from IS and Russia gradually increased. As one of the measures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the British military promoted a policy to break down existing social conservatism and assign female personnel to close combat positions. The British military formed a consensus within the military through discovery of female military use cases, longitudinal studies, and combat experiments, and then conducted strategic communication to form a social consensus and collect public opinions. In addition,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policy, established a combat fitness evaluation system that any combatant who performs close combat should pass. In Korea, amid accelerating competition for hegemony between the U.S. and China, security threats are increasing due to a decrease in military serviceable resources caused by population cliffs. Therefore, the case of the British military will give us considerable implications while also helping to provide the direction necessary for establishing future women's workforce policies.

Key words : Female Personnel, Ground Close Combat, Strategic Communication, Role Fitness Test(Soldier)

*정회원, 육군대학 전략학처 교관 (제1저자)

**정회원, 육군 3군단 사령부 (참여저자)

***정회원,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 연구원 (참여저자)

****정회원, 강점경영연구소 소장 (참여저자)

*****정회원,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법학 석사과정 (참여저자)

*****정회원, 우석대학교 군사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2년 1월 27일, 수정완료일: 2022년 3월 1일

게재확정일: 2022년 3월 8일

Received: January 27, 2022 / Revised: March 1, 2022

Accepted: March 8, 2022

*Corresponding Author: plbas@hanmail.net

Dept. of Military Science, WooSuk Univ, Korea

I. 서론

영국군의 여성인력 활용정책은 상당히 보수적이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군 복무는 남성 중심으로 수행되었고, 1950년대까지 여성의 군 복무는 제한되었다. 영국군은 이런 기초를 20세기 말까지 유지했다. 실제로, 영국 공군과 해군에 최초로 여성인력이 배치된 년도는 1989년(수송기 조종사)과 1990년(승무원)이었다.

하지만, 성 평등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전쟁 양상이 선형의 정규전·재래전에서 비선형의 비정규전·침단과학기술전쟁으로 변화되며, 군 지원율이 감소함에 따라 영국군의 여성인력 운용정책은 20세기 말부터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즉, 영국군은 이와 같은 도전요소(Challenges)를 극복하여 국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인력의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우리 군도 영국군과 동일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속적인 정치·경제의 발전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평등과 공정의 가치가 흐르고 있고, 미중 패권경쟁의 한 가운데서 새로운 전쟁에 대한 준비를 강요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구절벽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병역 가능자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던 영국군의 사례를 분석한다면, 우리 군이 인구절벽으로부터 초래되는 병역 가능자원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여성인력 활용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영국군의 여성인력 활용정책을 시기별로 분석하고, 이로부터 우리 군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테러와의 전쟁 시기

영국군의 여성인력 활용정책 변화

1. 21세기 이전

1950년대까지 여성 인력의 군 복무는 제한되었고, 이와 같은 경향은 20세기 말까지 지속되었다. 하지만, 영국군의 여성 인력은 성평등을 중요시하는 문화와 풍토가 확산되어 1990년대 47%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보수적인 영국군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급기야 1998년 ‘영국군 성 평등을 위한 보고서(Manning Report)’가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여성 인력의 복무가능 직위를 전체 47%에서 70%로 증가하고, 성폭력 예방대책이

수립하며, 임신한 여군은 전역해야 한다는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1].

하지만, 여전히 보병, 기갑, 해병대, 전투함 승무원, 전투기 조종사 등 근접전투(Ground Close Combat, GCC) 직위에 여성인력의 보직이 제한되었다. 주된 이유는 남성인력에 상응하는 신체능력(Physical Fitness)을 보유한 여성 인력은 소수이므로 전투병과에 대한 전면적인 개방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영국군은 20세기 말 그동안의 보수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여성 인력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2. 테러와의 전쟁 초기(2001~2014)

9·11테러 이후, 영국은 미국과 함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을 수행했다. 이 기간 영국군의 여성 인력은 주로 전투의무병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이들은 다회차의 파병을 꺼려하지 않는 태도와 교전상황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활약을 보여주었다. 또한, 근접전투를 수행하는 남성인력에 뒤처지지 않는 전투능력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2006년 아프가니스탄에 전투의무병으로 파병된 미셸 노리스(Michelle Norris)는 다음과 같은 공적으로 영국군 여군 최초로 십자(Military Cross)훈장을 수여받았다. 이처럼 영국군의 여성인력(전투의무병)은 이라크에서 6명, 아프가니스탄에서 3명이 전사할 정도로 치열한 근접전투에서 활약하였다. 이로 인해, 영국군 내부에서는 GCC 직위에 여성인력을 보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여성 인력의 활약을 목도(目睹)한 영국군은 2010년 남·녀 성 인력으로 구성된 부대(Mix-gender Team)와 남성인력만 구성된 부대(Single-gender Team)의 응집력(Cohesion)과 전투효과성(Combat Effectiveness)을 비교하는 연구과제를 발주하였다. 전자의 응집력과 전투효과성이 후자와 유사하게 측정되었고, 근접전투의 위협성으로 GCC 보직에 여성인력을 배제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2].

하지만 2010년 개정된 영국의 평등법에서는 여전히 여성 인력의 GCC 보직을 제한하였다. 이로 인해, 영국군의 여성 인력 GCC 보직은 답보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테러와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이라크 전쟁은 2011년 12월 15일에 종료되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2014년 12월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안보지원군(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ISAF)의 군사작전은 아프가니스탄군으로 전환되었다.



출처: http://news.bbc.co.uk/2/hi/south_asia/7222989.stm

그림 1. 영국군의 헬만드(Helmand) 주 PRT
Figure 1. Helmand PTR of the British Armed Forces

3. 테러와의 전쟁 중기(2014~2016)

영국군은 전술한 것처럼 2014년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지원작전을 수행했다. 그 결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영국군 사망자 수는 급감했고, 안정적으로 군사지원작전을 전개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영국군의 여성인력 GCC 보직 문제는 이전 만큼 공론화될 수는 없게 되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영국에 새로운 위협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우선, 2011년부터 시작된 시리아 내전으로 이민자와 난민의 수가 급증하게 되었다. 또한, 2014년부터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인 IS가 출몰하여 중동 정세를 악화시키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2014년 러시아가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을 감행하여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합병하고, 돈바스 지역 침공하였다. 즉, 영국 내부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커지고, 유럽의 안보위협이 증대되었으나 영국군은 출산을 지하로 2010년에 수립된 병력감축 계획에 따라 현역의 수를 감소시키고 있는 중이었다. 특히, 영국 육군의 병력 감축은 상당하였다. 2010년 육군의 현역 수는 102,260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81,700명으로 감축되었다[3].

설상가상으로, 2014년에는 영국 육군의 모병율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였다. 2013년 초에는 1만 명이 모병되었으나, 2014년 초반부터 2015년 초반까지는 그 인원이 7천 명 이하로 감소되었다.

영국군은 영국 내외부로 가해지는 위협이 증대되고, 모병율이 감소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10년에 논의

되었던 여성인력의 GCC 보직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영국군은 2014년 남성인력으로만 편성된 부대에 여성인력을 포함했을 때 전투효과성(중속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독립변수 21개를 설정하고 실험연구를 실시했고, 측정을 위해 심화연구가 필요하다 밝힌 2개의 변수를 제외한 19개 변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4]. 용기(Courage) 등 3개 변수는 여성의 참여가 전투효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측정되었고, 규율(Discipline) 등 16개의 변수는 여성의 참여가 전투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 근무경험(Collective Work Experience) 변수는 긍정적인 효과를, 동료지원(Peer support) 등 4개의 변수는 리더십 및 환경의 정도에 따라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모두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기술기반 신뢰성(Skill Based Credibility) 등 11개의 변수는 여성의 참여가 부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측정되었으나, 연구에서는 국가와 군의 지원, 교육, 군 구성원들의 수용성 향상 등의 치치가 가해진다면 신체적 능력(Physical Capability) 등 8개의 변수는 부정적 효과를 ‘중립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영국 육군의 연구결과 해석은 다음과 같다. 여성인력의 포함이 전투 효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3개의 변수 영역은 곧 이 능력이 남성의 능력과 큰 차이가 없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라 판단했고 영향을 주는 16개의 변수 중 긍정적 영향 1개와, 긍정과 부정을 모두 불러올 수 있는 4개의 변수, 그리고 부정적 영향의 변수 중 국가와 군의 지원이 있다면 완화가능한 8개의 변수를 합한 13개의 변수를 여성에게 GCC 역할을 부여해도 문제없다는 결과로 판단하였다. 21개 변수는 <Table 1>과 같다.

결과적으로, 영국군은 남·녀 성 인력 혼성부대에 대한 연구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여성인력의 GCC 보직 제한을 철폐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남·녀성인력 혼성부대 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혼성부대의 응집력과 전투 효과성에 대한 추가연구를 진행하였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마이클 펠론(Michael Fallon)은 2016년 이에 대한 추가연구를 육군 보병학교(Infantry Battle School)와 국방과학기술연구소(Defence Science and Technology Laboratory)에 지시하였다.

이들은 전투 효과성, 생존성, 치명성 및 전투하중 극복능력(Load Carriage)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인력이 전투 하중을 견디지 못할 경우 피로가 축적되어 사격능력이 저하되고, 결국 전투원의 치명성 감소로 이어진다. 둘째, 여성인력의 질병 발생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최적화된 훈련이 필요하다. 즉, 여성인력의 GCC 보직을 위해서는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미다[5].

표 1. 여성의 GCC참여에 대한 전투효과성 측정변수
Table 1. The 21-factors contributing to combat effectiveness

구분		변수명	
추가연구필요(2)		1.Controlled Aggression	
		2.Mental resilience	
영향없음(3)		3.Task Commitment	
		4.Motivation and Group Commitment	
		5.Courage	
영향 있음 (16)	긍정적(1)	6.Collective Work Experience	
	긍정, 부정(4)	7.Discipline	
		8.Peer Support	
		9.Collective Social Experience	
		10.Morale	
	부정 (11)	완화 가능 (8)	11.Skill Based Credibility
			12.Male/Female Interaction
			13.Concept of Protection
			14.Sexual Relationships
			15.Mental Health
			16.Physical Capability
			17.Critical mass v tokenism
			18.Bullying, Harassment, and Discrimination
		완화 제한 (3)	19.Survivability/Lethality
			20.Deployability
			21.Morbidity

: 여성의 GCC참여가 문제없다고 판단한 변수

4. 테러와의 전쟁 후기(2016~2021)

영국군은 전술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남·여성인력 혼성부대를 운용하기 위한 체력검정체계를 재설계하였다. 그 결과, 모든 영국 육군에게 적용되는 기본체력평가(Personal Fitness Assessment, PFA)와 근접전투(GCC)를 수행하는 모든 전투원에게 적용되는 전투체력평가(Role Fitness Test(Soldier), RFT(S))가 도입되었다[6]. PFA 평가과목은 멀리뛰기(Broad Jump), 메드볼 던지기(Med Ball Throw), 데드리프트(Deadlift), 100m

달리기(100m Sprints), 헤베스(Heaves), 2km 달리기(2km Run) 등 6개이다.



출처: <https://www.forces.net/services/army>

그림 2. 영국군 기본체력평가 과목
Figure 2. Personal Fitness Assessment Courses

그리고 전술한 것처럼 영국 육군이라면 성별, 나이, 신분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다음과 같은 동일한 평가기준이 적용되고, 세부적인 평가 중점은 다음과 같다.

표 2. 기본체력평가 중점
Table 2. Personal Fitness Assessment Key Points

평가과목	평가중점
멀리뛰기	• 수평점프를 통한 하지 폭발력 측정
메드볼 던지기	• 4kg 공을 착석하 투척하여 상체 폭발력을 측정
데드리프트	• 헬스바를 갖춘 데드리프트를 활용하여 하지 강도를 측정
100M 달리기	• 5×20M 달리기를 통해 하체 폭발력 및 혐기성 능력 측정
헤베스	• 상체 강도를 측정하는 턱걸이 및 숨참기
2KM 달리기	• 유산소 능력을 측정하는 2KM 전력질주

다음으로, RFT(S) 평가과목은 급속행군(Loaded March), 사격과 기동(Fire & Movement), 부상자 끌기(Casualty Drag), 물통 옮기기(Water Can Carry), 부상자 차량 옮기기(Vehicle CASEVAC), 전투물자 짊어지고 뛰기(Lift & Carry) 등 6개다.

RFT(S)는 전투 상황에 맞게 엄격한 평가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평가 과목과 기준은 그 동안의 근접

전투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치열한 근접전투가 이루어지는 전투 현장에서는 전술한 것처럼 성별, 신분, 나이 등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 이상의 전투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군은 이와 같은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한 후 내부 공감대 형성과 추가적인 전투실험을 거친다음 2016년부터 여성인력의 GCC 보직제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7]. 이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17년 3월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영국군은 이와 같은 군 내부와 국민과의 전략적 소통(Strategic Communication, SC)을 진행하면서 2016년 말부터 기갑병과에, 2017년부터 보병병과에 복무 중이거나 임관하는 여성인력의 전과나 보직을 허용하였다. 또한, 영국군은 런던 테러(2017년 6월 3일) 발생한 직후에 남녀 성인력이 혼성된 치안유지팀을 주요 도시에 운용했으며 더 나아가 2018년 2월에는 고도의 전투능력이 필요한 특수전 분야도 로지 월드(Rosie Wild) 대위가 특수전 과정을 수료함으로써 여성인력에게 문호가 개방되었다. 이로써 근접전투를 주로 수행하는 영국 육군은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 여성인력을 보직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영국군은 출산을 저하와 모병을 감소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One of Courses of Action)을 확보하게 되었다.

IV. 시사점

영국군은 새로운 전쟁 양상 출현, 군 구조 개편, 평등과 공정의 가치 확산, 출산을 저하 등 다양한 국·내외적 도전에 직면했었다. 하지만 영국군은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정책을 통해 전술한 도전을 극복해나가고 있다. 영국군이 직면했던 상황은 현재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다. 따라서 영국군이 시도하고 적용했던 정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첫째, 영국군은 여성 인력 GCC 보직을 허용하기 위해 군 내부와 국민과의 SC를 전개했다. 우선, 영국군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활약한 여성인력의 사례를 발굴하여 여성 인력도 남성 인력 못지 않게 근접전투에서 전투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군 내부에 환기시켰다. 다음으로, 남·녀성인력이 혼성된 부대에 대한 중단 연구를 총 3회(2010년, 2014년, 2016년) 실시하여 여성

인력의 GCC 보직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가시화했다. 이와 함께, 남녀 혼성부대의 전투 효율성에 대한 다양한 전투실험을 진행하여 전술한 중단연구를 실제적으로 뒷받침했다. 마지막으로, 여성 인력의 GCC 보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에게 의견을 수렴하였다. 즉, 영국군은 사례 발굴, 중단연구, 전투실험 등을 통해 여성인력의 GCC 보직 군 내부의 의견을 하나(One Voice)로 모은 후, 이를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우리도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 가능자원 감소로 여성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때 전술한 영국군의 접근방법을 벤치마킹(Bench-marking)한다면 군 내·외적으로 비교적 순조롭게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영국군은 GCC 보직인원에 대해서 성별, 나이, 신분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체력평가 과목과 기준을 적용하였다. 치열한 근접전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원은 치명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투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영국군은 근접전투지역에서의 치명성은 체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전투 현장에 걸맞는 6개의 체력평가 과목을 선정하고 그동안 전투경험을 분석하여 엄격한 평가기준을 선정했다. 우리도 '국방개혁 2.0'에 따라 여성 인력이 증가하고, 상당수는 근접전투를 수행하는 직책에 보직될 것이다. 미래 한반도의 근접전투 현장도 영국군이 경험했던 중동지역 만큼 치명적인 위협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피아가 혼재되어 치열한 교전이 이루어지는 근접전투의 본질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도 영국군처럼 근접전투를 수행하는 모든 전투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전투현장에 적합한 전투체력 평가체계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가속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쟁과 마찰은 한반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인구절벽으로 병역 가능자원이 감소하고 있다. 즉, 한반도에 가해지는 위협은 강도지고 있으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병력은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영국군은 이미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여성인력의 GCC 보직을 정책적으로 구현하였다. 하지만 영국은 전술한 것처럼 군 내부와 군을 바라보는 사회적 보수성이 강해 여성인력의 GCC 보직 허용이 쉽지 않았다. 영국군은 이와 같은 사회적 보수성을 타파하기 위해 우선 사례 발굴, 중단연구, 전투실험 등을 통해 군내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리고 나서, 대국민 SC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갔다.

따라서 우리가 전술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영국군의 사례를 적용하는 데는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전 시사점에서 언급한 영국군의 SC 절차와 성별, 나이, 신분 등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전투체력 평가체계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영국 못지않게 유교적 보수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병역 가능자원 부족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References

- [1] Fitriani, Randolph G S Cooper & Ron Matthews, "Women in Ground Close Combat", *The RUSI Journal*, Vol(1) 161, pp.14-24, 2016.
- [2] <https://www.army.mod.uk/search-results/?Query=female>
- [3] <https://www.bbc.com/news/uk-33638492>
- [4] "Women in ground close combat findings paper (1Dec2014)", Ministry of Defence, UK.
- [5] "Women in ground close combat findings paper (16May2016)", Ministry of Defence, UK.
- [6] <https://www.forces.net/services/army/all-you-need-know-about-british-armys-fitness-standards>
- [7] Jennifer Keohane & Kelly Jakes, "Soldiers and Scholars: Evaluating Female Engagement Teams in the War in Afghanistan", *Women's Studies in Communication*, Vol(44) 1, pp-102-118, 2020.